

生態學的 커뮤니케이션 研究

—人間커뮤니케이션의 積分을 中心으로—

朴 許 植

目 次

- | | |
|---------------------|------------------------|
| 1. 序言 | (2) 第2像: 커뮤니케이션의 消費 |
| 2. “人間”에 對한 有機體的 積分 | (3) 第3像: 커뮤니케이션의 蓄積 |
| 3. 人間커뮤니케이션의 束縛 | 5. 커뮤니케이션 統制觀의 生態學的 分析 |
| 4. 커뮤니케이션의 生態學的 實像 | 6. 結論 |
| (1) 第1像: 커뮤니케이션의 生産 | |

1. 序 言

커뮤니케이션의 現象學的인 스텝크스의 眼光이 20世紀에 들어서면서 太陽化하자 이에 대한 연구가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太陽의 빛은 모든 有機體의 必須的 要素가 되듯 오늘날의 모든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情報受容없이는 生活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人間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언어의 傳達↔受容이라는 극히 초보적인 概念을 넘어 서서 體系的인 學究的 研究를 하는데 까지 발전을 보았으나, 그 內容上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基本的 理論보다도 實用的 現實性에 立脚한 研究의 比重이었다. 이결과 根本的 理論의 체계적 확립이 결여된 채 現象을 분석하므로써 研究方法上 어떤 좁은 域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人間은 有機體다. 有機體인 人間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現象을 분석, 종합, 연구함에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종래와 같은 연구 입장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단위를 一個人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을 여기서는 微分的 研究라 부르기로 하자. 一個人은 모든 커뮤니케이션활동의 主體가 되어 있고, 이들의 生態的 集合이 社會를 구축한다는 視角이 이제까지의 모든 見解였으며 이로부터 출발한 연구가 社會現象의 규명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視角外에 또 다른 面은 없을까?

종래의 모든 社會科學에서 研究出發의 基本적 命題로 삼아 왔던 個體概念은 數學的 概念

으로서의 기본단위이지 有機體의 基本單位는 아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視角의 研究出發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人間을 通時的인 觀點에서 積分할 때 나오는 概念이므로 이에 대한 研究방법을 積分的 研究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는 다음 章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積分的 研究의 누락現象은 기초이론연구의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닌가 生覺되는데 人間の 個體單位에 대한 論難이 된 關係문헌을 전혀 발견치 못하여 本論文을 쓰는데, 參考할 수 있는 資料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本主張이 誤謬에 빠질 危險성이 크므로 여기서는 試論으로만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學問研究의 새로운 可能性을 制約하고 있는 基礎理論의 결핍이 가져온 결과를 다음의 글에서도 一部 발견할 수가 있다.

「社會科學으로서의 新聞學 내지 新聞學研究의 未來를 展望하면서 美國의 著名한 新聞學者인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은 新聞學을 하나의 專門化된 學問(discipline)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問題領域(field)으로 간주하면서 마치 沙漠의 오아시스처럼 各地에서 온 隊商들이 거치는 學問의 十字路로 비유한 것이 있다.」¹⁾

이처럼 新聞學을 問題의 領域으로만 간주할뿐 學問의 十字路로 보는 방향의 近因은 基礎理論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60年代後半부터 커뮤니케이션學 理論의 體系化가 시도되므로써 이와같은 學問的 방향을 탈피하고 社會과학으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과거의 研究현황도 예외는 아니다.

개괄적 研究를 史的 側面에서 행한 林根洙教授의 新聞學關係 論文 및 著書의 主題別 分析結果가 이를 立證하고 있다.²⁾

	總延人員	•新聞媒體論 •記者論(取材報道技術書)	•政府和 言論 •言論의 自由와 責任	史的研究	•메스컴 理論紹介 •푸브리저스틱紹介
學界	18	4(22%)	6(39%)	4(22%)	4(22%)
實務界	34	17(50%)	8(24%)	7(21%)	2(6%)

위 표를 보면 메스컴理論紹介 및 푸브리저스틱紹介가 學界에서 22%, 實務界에서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機能의 크기 및 重要性에 비추어 극히 미약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의 現象學的 側面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이를 立證해 주는 좋은 例가 本研究所에서 이제까지 연구된 業績을 조사하는 가운데서도 발견되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1) Wilbur Schramm, "Comment on the State of Communicat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3, No. 1, Spring 1959,

新聞學理論, 朴有鳳外 3人, 博英社, p. 17, 再引

2) 林根洙, 韓國新聞學의 成立過程과 그 研究現況의 系普의 考察, 저널리즘, 한국기자협회, 1976, p. 86.

지의 新聞研究所學報에 게재된 論文 54편중에서 人間커뮤니케이션의 本質에 관한 研究를 시도한 것이 겨우 2편뿐이었다).

어쨌든 人間커뮤니케이션의 연구에 대한 근본적 論議의 對象이 종래의 단일적 出發의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에서 人間에 대한 有機體的 積分을 해 보고자 한다.

2. “人間”에 對한 有機體的 積分

우리는 社會現象을 研究함에 있어서 微分的인 方法만으로는 不完全하다. 특히 人間의 경우 社會科學은 有機體의 상호관계성을 다루는 특수학문이면서도 有機體의 學問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상실되기 쉽다.

따라서 社會科學者들 中에서 이점에 착안하여 社會理論에 有機體說을 도입하는 등 學問的 發展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유기체적 이론 도입은 微分된 상태에서의 相互補完이었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왔다.

積分的 概念으로서의 個體에 대한 論議는 生物學的 領域이므로 이의 이해를 위하여 生物學的 특성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人間커뮤니케이션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은 人間에게만 있는 現象이 아니지만 他動物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그 數와 質에 있어서 全生物의 言語를 모은 것과 비교할 만하다.

人間의 言語는 動物의 言語와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가장 근본적 差異는 人間의 言語가 事物을 代表하고 一般化할 수 있는 symbol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動物의 言語는 그것해야 事物 그 自體인 시그널을 利用하는 線에서 그쳐버린다는 점이다.³⁾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動物心理學者들은 人間의 次元에서 본 動物의 커뮤니케이션판단은 不完全하므로 異種間의 비교는 意味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커뮤니케이션의 비교적인 위치를 定하기 위해서는 이 過程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이 비교과정에서 동물커뮤니케이션의 一般的 樣相이 人間커뮤니케이션 研究에 제공하는 이론적 示唆가 있음을 우리는 重視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동물커뮤니케이션은 광범하고도 깊게 체계적으로 研究되어야 할 중요성을 갖게 되며 이제까지 研究된 동물커뮤니케이션의 結果와 生物學的 지식은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個體論을 論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사실들을 生活의 化石에서 수 없이 露呈하고 있다.

動物이 생활의 한 방편으로 취하는 그룹의 형태가 바로 이의 一種이다. 한 個體群內에서 기본적인 集合形態는 제일 먼저——적어도 척추동물에선——夫婦와 家族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새에서도 夫婦集合은 안정성을 보이지 않으며 다만 생식을 위해 한 季節

3) 崔鍾洙, 人間의 커뮤니케이션과 動物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研究,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조사연구소, 1975, p.28.

만 지속될 뿐이다. 夫婦관계가 수년간 계속되는 種은 매우 드물어 알바트로스, 갈매기, 제비갈매기, 바다제비가 있을 뿐이며 포유류중에선 늑대와 여우가 있다. 대체로 夫婦關係는 生殖期 또는 그전에(오리의 경우) 이루어 지고 生殖이 끝나면 解消되어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척추동물과 魚類에선 夫婦라는 말을 거의 쓸 수 없다. 또한 哺乳類에선 兩性이 거의 영구적으로 分離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 野生라마와 임팔라와 같은 有蹄類(Ongulé)에선 홀아비 솟갓들끼리 클럽(club)을 형성한다.

제2의 基本的 集合形式은 家族(family)으로서 어버이와 子孫간의 연관을 말하며 연관이 유지되는 기간은 여러가지다. 새끼가 부화되거나 낳을 때에도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대부분의 無脊椎動物)가 있는가하면 昆蟲에선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되어 나오면 어미가 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Xyloterus屬의 나무좀이 그 예이다. 또한 家族構成이 어미와 그 새끼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몇몇 새(雷鳥, 도요)에서 그렇고 대개의 哺乳類(암사슴과 그새끼)에서 그렇다. 그러나 때때로 새끼를 돌보는 것이 수컷인 경우가 있으며(지느러미발 도요, 세가락 모르래기, 호사 도요 따위의 새와 海馬같은 물고기)어버이 돌과 새끼 돌로 가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鳥類와 여우따위의 哺乳類가 그렇다. 그러나 이런 집단은 얼마 유지되지 못한다(예의가 있다면 移動할 때에도 새끼들이 어버이를 따라 다니는 두루미의 경우). 이따금 새끼들이 이듬해의 生殖季節까지 어미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다(새발가락 나무늘보, 오스트레일리아 코알라, 새끼사자들 같은 哺乳類).

이보다 높은 水準으로 올라가면 群體(colony)라는 動物社會集團에서 볼 수 있는 集合形式이 있다. 群體란 同一種의 動物이 生殖을 爲해 제한된 한 空間에 모여 이루는 總體를 말하며 이들 사이에는 다소 복잡한 社會關係가 있어 集合으로써 群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보통 개미 또는 벌에게 群體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임시로 群體를 形成하는 動物(물개, 지바퀴의 일종)個體간의 관계는 벌과 개미의 그것과는 달라 벌과 개미의 생활은 人間의 社會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群體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⁴⁾

이러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 人間의 集合形式인 “社會”이다. 人間은 夫婦와 子孫으로 가족이 구성되며 계약에 의한 준영구적 연관을 가진다. 이 관계는 인간의 지혜가 발전함에 따라 大家族制度에서 中家族制度→小家族制度→核家族制度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內部構成의 分化 및 결합형태가 自由性を 지향하면서 발전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와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集合形式은 모두 分子的 個體개념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生物學에서 個體에 대한 論議가 社會科學과 관련하여 이룩된 바 없고 반대로 社會科學에서도 生物學과 관련하여 論議된 바 없다. 그러므로 個體論에 대한 論議는 생태학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서 첫 과제로 등장하게

4) Michel Cuisin著/李炳勛譯, 生態學이란 무엇인가? 現代科學新書, 53, pp.116~118.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집합형태를 기초로 생각한다면 生物學的 個體란 世代를 이어나갈 수 있는 最小單位가 個體의 意味를 갖는다고 筆者는 본다. 만약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個個를 生物學的 個體概念으로 본다면 이때의 個個는 그 個個로써 生命은 끝나고 말며 또한 그 個個가 자기種을 代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種은 雌雄異體인 경우 雌雄한쌍이 種을 완전히 代表한다. 이와같은 觀點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原子的 個體와 分子的 個體가 다르다는 말로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原子는 物體의 基本이 되나 物體의 性質은 가지고 있지 않다. 物體의 性質을 가진 最小基本單位는 分子이다. 이런 面에서 이제까지 사용해진 個體概念을 微分的 개념이라 한다면 生物學的 個體概念은 世代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므로 分子的(積分的) 概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立場에 의하면 現代社會科學이犯하는 誤謬도 발견하게 된다. 諸社會科學은 分子的 個體概念에서 나오는 社會 諸現象을 研究對象으로 하면서도 社會를 이루는 基本單位는 언제나 原子的 個體만을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물질에서도 原子와 分子의 내용이 同一한 것이 있듯이 生物體的 경우도 原子的 個體와 分子的 個體가 항상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 상태는 유기체의 種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까지 生物學에 의해 發見된 것에 의하면 有機體가 世代를 이어가는 데는 2가지 모형을 보이고 있다. 즉 雌雄同體와 雌雄異體에 의한 방식이다.

雌雄同體에 속하는 것들은 대부분 下等動物이며 高等動物로 오면서 雌雄異體로 된다. 15,000種에 달하는 原生動物의 대부분과 그밖의 一部 生物體들이 代表的인 自營동체인데 이들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생식법을 보인다.⁵⁾ 人間은 雌雄異體의 典型的인 모델이므로 人間の 分子的 個體는 2人(즉 남·여)이어야 한다는 論據가 여기서 제공된다.

이처럼 인간의 分子的 個體를 남·녀로 볼때 社會라는 집단속에서 原子的 個體로 수행되는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등 여러가지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個體論이 확립된 후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試論的 모델의 一部만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試論的 Model>

이제까지 一般的으로 사용되어 온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Model은 크게 構造的 觀點의 Model, 機態的 觀點의 Model, 效果的 觀點의 Model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構造的 觀點의 Model을 제시하는 學者로는 Shannon과 Weaver,⁷⁾ Rosensten, 및 Rathbone 및 Schneer,⁸⁾ Anderson,⁹⁾ Westley와 MacLean,¹⁰⁾ Charnley¹¹⁾등이며 Johnson,¹²⁾

5) 金薰洙外 4人, 最新動物學, 集賢社, p.127.

6) 車培根, 커뮤니케이션學概論(上), 世英社, p.31.

7) Claude Shannon and Warren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1949, p.7.

8) Allen B. Rosensten, Robert R. Rathbone and William F. Schneer; Engineering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4, p.21.

Schramm,¹³⁾ Gerbner,¹⁴⁾ Zelko와 Dance,¹⁵⁾ Tillman과 Kirkpatrick,¹⁶⁾ Borden,¹⁷⁾ Osgood,¹⁸⁾ Clevenger와 Matthew¹⁹⁾ 등은 機能的 模型을 제시하고 있고, 反應誘發의 效果模型을 들고 있는 學者로는 Lasswell,²⁰⁾ Hovland와 Janis,²¹⁾ Berlo,²²⁾ Reid,²³⁾ Miller,²⁴⁾ Andersen,²⁵⁾ Maletzke,²⁶⁾ McGuire²⁷⁾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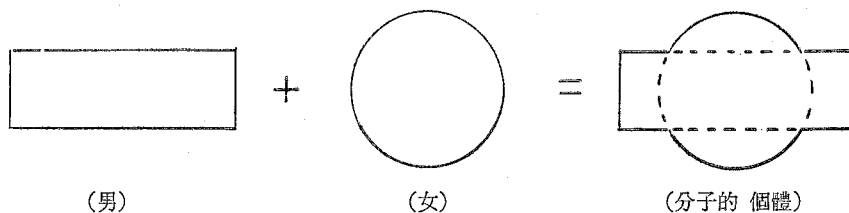
이들이 보여주는 모든 모델은 모두 原子的 個體를 中心으로 한 것이어서 單一한 人間 커뮤니케이션 모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델은 人間의 남녀는 事實上 性的 差異에 따른 특질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社會性的 집단이 原子的이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現代社會學에서 주장하는 社會實體論이 原子的 個體概念으로는 充分히 說明되지 않는다. 따라서 生物學的 특성이라고만 보고 있는 性的 分離는 人間 커뮤니케이션을 분리시키고 있는 동시에 社會性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왜냐하면 子息을 낳기 위해서는 原子的 個體가 서로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 커뮤니케이션

- 9) Kenneth E. Andersen, "Variant Views of the Communicative Act" in Speech Communication edited by Howard H. Martin and Kenneth E. Andersen, Boston: Allyn and Bacon, 1968, p. 16.
- 10) Bruce H. Westley and Malcom B. MacLean, "A Conceptual Model for Communication Research", Audio-visual Communication Review, p. 19.
- 11) Mitchell V. Charnley, Reporting. New York: Holt,
- 12) Wendell Johnson; "The Fateful Process of Mr. A Talking to Mr. B", Harvard Business Review, 31, 1953, p. 50.
- 13) Wilbur Schramm, "How Communication Works", in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Ill.: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4, p. 4, 6, 7, 8.
- 14) George C. Gerbner, "Toward a General Model of Communication", Audio-Visual Communication Review, 4, 1956, p. 172.
- 15) Harold P. Zelko and Frank E. X. Dance, Business and Professional Speech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 6~7.
- 16) Rollie Tillman and C.A. Kirkpatrick, Promotion: Persuasive Communication in Marketing,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68, pp. 109.
- 17) George A. Borden, An Introduction to Human Communication Theory, Dubuque, Iowa: Wm C. Brown Co., 1971, p. 3.
- 18) Charles E. Osgood, "Psycholinguistics: A Survey of Theory and Research Proble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1954, Morton Prince Memorial Supplement, p. 3.
- 19) Theodore Clevenger, Jr. and Jack Matthews, The Speech Communication Process.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 1971, p. 195.
- 20) Harol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1948, p. 37.
- 21) Irving L. Janis and Carl I. Hovland, "An Overview of Persuasibility Research", in Personality and Persuasibi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4.
- 22) David K. Berlo,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0, p. 72.
- 23) Ronald F. Reid,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Speech, Chicago: Scott, Foresman and Co., 1965, p. 7.
- 24) Gerald R. Miller, Speech Communication, New York: The Bobbs-Merrill, 1966, p. 73.
- 25) Kenneth, E. Anderson, Variant Views of the Communicative Act", in Speech Communication edited by Howard H. Martin and Kenneth E. Andersen, Boston: Allyn and Bacon, 1968, p. 24.
- 26) Gerhard Maletzke, Psychologie der Massenkommunikation, 1963,
- 27) William McGuire, "Persuasion, Resistance, and Attitude Change," in Ithiel de Sola pool et al.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 Co., 1973, p. 223.

이전의 分子的 Model은 이들을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分子的 個體概念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단위(unit)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分子的 個體概念에 의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1차적으로 생겨나는 問題는 原子的 個人間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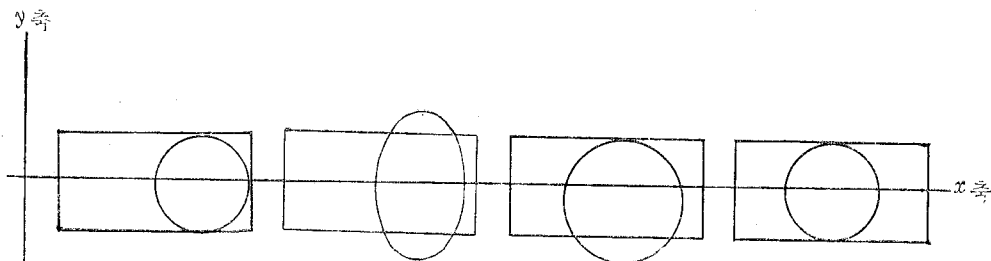
人間은 어느 유기체보다도 “自由”를 지향하는 동물이어서 原子的 個體로 행동한다. 그러나 分子的 上位概念을 向한 노력은 이 原子的 個體 행동을 구체화시키고 통제한다. 즉 原子的 個體는 그 나름으로 활동을 하되 分子的 個體라는 上位概念의 틀속에 예속하면서 社會的 關係를 타인과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原子的 個體로서의 社會集團內 커뮤니케이션 Model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남자는 이런 형태로 社會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자는 이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變形의 個體的인 所有는 生物學的 특징인 性的 差異에서 오게 되며 이로 인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결에서 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배운다. 그후에 成長해가면서 性的 특징에 의하여 남자는 형태로, 여자는 형태로 바뀌며 社會에서 分子的 個體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조직속에서의 기능론적 연구에서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試論에 의하면 변형된 모델이 수 없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이, 地域間的 方言形成, 言語의 뉴앙스발생 및 커뮤니케이션 解讀法의 相異性을 說明할 수 있는 材原이 되기도 한다.

Model변형에 대한 例示를 보이면;



{ x축 : 環境의 特性
y축 : 有機體의 特性

이상에서 分子的 個體論의 실마리를 찾아 보았는데 이는 앞으로의 또다른 研究에서 詳述코자 하며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原子的 個體와 分子的 個體에 立脚한 두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만 하고 다음의 이론을 더 풀어가고자 한다.

3. 人間커뮤니케이션의 束縛

原子的 個體와 分子的 個體가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束縛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有機體的 束縛과 環境的 束縛이다. 이러한 兩面을 극복하려는 人間의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人類의 歷史란 人間의 機能을 擴張하기 위한 道具 즉 媒體의 發達史라고 맥무한이 말하고 있듯이 媒體는 人間커뮤니케이션이 갖는 束縛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例임에 틀림없다.

有機體的 束縛: 인간은 有機體로서의 특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生物的 측면에서의 束縛을 받는다.

커뮤니케이션의 能力은 살아 있는 細胞의 基本的 特徵이다. 이 特徵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John R. Pierce는 세포간 커뮤니케이션(cellular communication)에 있어서 情報의 形態를 3形態 즉 遺傳的 情報(genetic information), 代謝的 情報(metabolic information) 및 神經的 情報(nervous information)로 區分하고 있다.

有機體的 遺傳的 情報(genetic information)는 DNA의 構成要素인 4種類의 物質——adenine, guanine, thymine——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過程이 體驗領域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出生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며, 遺傳的 커뮤니케이션은 種의 進化的 發展이라는 生物學的 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進化를 유발하는 原動力은 核酸내에 있는 遺傳物質에서 비롯된다. 自然的 環境變化에 대한 참여과정에서 유기체 특히 인간은 自然적 변화의 자극을 既存狀態에 적합하도록 바꿀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 변화의 계속적인 자극적 情報축적은 進化的 원동력이 되는 核酸에 변화를 초래한다.

代謝的 情報(metabolic information)는 化學的 過程에 參與하는 크고 작은 分子들의 質과 濃度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代謝的 情報에 의하여 細胞들은 번식하고 성장하며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遺傳的 情報와는 달리 모든 有機體의 壽命에 관계하며 아주 密接해 있는 조직화된 細胞社會에서 극히 중요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細胞社會(society of cells)에서의 代謝的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은 腺細胞의 分泌物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 분비물은 細胞와 細胞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분비물을 우리는 흔히 호르몬(Hormone)이라 부르고 있다.

代謝的 커뮤니케이션의 生物學的 機能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多細胞動物과 植物의 成長을 秩序있게 調節하는 일이고 둘째는 外部環境의 變化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신체내부의 체온, 화학적 성분다위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도록 조절하는 일이다.

神經的 情報(nervous information)는 多細胞動物이 所有하고 있는 特殊細胞 即 神經細胞 혹은 neuron(neuron)의 活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代謝的 情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f metabolic information)이 일어나는 生理的 期間은 遺傳的 情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f genetic information)이 일어나는 진화적 期間보다 훨씬 짧지만 神經的 情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f nervous information)은 이것들보다 훨씬 빨리 數抄 아니면 수천분의 1抄 밖에 안걸린다. 神經이 수행하는 神經的 情報 커뮤니케이션의 生物學的 기능은 動物의 行動은 말할 것도 없고 一般的인 자극↔반응을 生産하는 것이다. 이 神經系는 3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외부환경 정보를 받아 들이는 感受器(感受器)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여 반응으로 내보내는 效果器(effector), 그리고 感受器와 效果器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神經細胞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經驗으로부터 學習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⁸⁾ 바로 이 기능때문에 동물은 情報受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stereotype 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며 進化的 情報의 生物學的 殘留가 일어난다고 보여진다.

이상 위에서 열거한 3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은 人間의 生存을 유지시키는 유기체적 활동이므로 이들은 그 屬性으로 다른 유기체와 구별되는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유기체가 自然의 극히 적은 一部인테서 오는 결과인 동시에 神이 언어능력을 人間에게 편중시킨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人間의 약점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새군은 너무 작아서 肉眼으로는 보이지 않아 人間에게 침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20 cycle미만의 짧은 들을 수 없는가 하면 外界的 刺戟이 體내에 蓄積되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극의 미세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유기체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생물학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環境的 束縛: 커뮤니케이션의 有機體的 束縛外에 人間은 環境的으로 커다란 束縛을 받는다. 이 束縛은 人間에 不便을 주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의 行態에 變化를 가하는 溯機能의 作用도 했다.

J. R. Pierce는 “人間이 技術과 知識을 축적할 수 있는 靈感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社會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社會는 人間에게 인간 스스로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무엇인가 얻어야 할 필요성만을 제공하고 있다. 더우기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성을 훨씬 넘어서서 補償을 운반한다. 動物은 그들이 사는 法을 알지 못하고서 살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의사전달하는가를 알지 못하

28) Gunther S. Stent, Cellular Communication, Scientific American 1972. 9, pp.43~45.

고서 커뮤니케이트한다. 전반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人間은 動物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살며 또한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 人間의 보다 나은 머리와 言語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手段이 그와같은 思索을 가능케 한다”²⁹⁾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가져온 道具를 이해하는 過程이 重要하다가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主張은 커뮤니케이션媒體의 道具的 發展이 人間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점과 일치하고 있는데 人間의 이와같은 道具的 發明은 環境的 制約 要因을 극복하고자 하는 動機에서 出發하게 된 것이다.

直接的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고자 발명해 낸 가장 오래고도 단순한 수단은 信號였다. 信號의 存在는 先史時代로까지 올라가지만 아직도 存在하는 “原始的의” 文化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信號는 간단한 內容만을 傳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人間은 말의 미묘한 ニュ앙스의 차이로 표현되는 많은 것을 끄집어 내어 客觀化하고 定着시킬 가능성을 文字의 형태로 남겨 되었다. 直接的인 말은 극히 一時的이고 또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밖에 들을 수 없지만 이것을 文字로 표현하면 時間的으로 保持할 수 있고 空間的으로 운반할 수 있다. 文字에 의하여 비로소 공간을 연결하는 메시지의 交換과 時間을 극복한 메시지의 貯藏이 시작되었다.³⁰⁾ 이러한 메시지 貯藏이 모든 人間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時代는 종지와 印刷術의 發明에서 큰 진전을 보았으나 時間과 空間 및 커뮤니케이션 方法上의 不完全性에서 오는 制約的 要因을 Zero化하려는 人間의 노력은 결국 20世紀말엽부터 本格化하기 始作한 電子媒體時代의 門을 열었다. 이러한 道具的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하여 人間이 環境的 制約要因의 상당부분을 제거한 셈이지만 環境에서 오는 制約要因을 完全히 Zero化할 수는 없다. 社會文化的 측면의 環境은 더욱 많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요인의 추적은 生態學的 커뮤니케이션의 主된 研究課題이다.

Influences of Geographic Environment에서 Semple이 “人間은 地球表面의 한 生物이다. 地球는 人間을 낳고, 키우고, 일을 주며 그의 思考方向을 定해주고……”³¹⁾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人間의 커뮤니케이션도 地理的 空間的 時間的 制約을 받는다.

이러한 例를 歷史的 社會發展에서 考察하고 있는 學者가 N. J. Spykman이다. 그는 쓰런과 프랑스의 首都가 現位置에 定着하게 된 이유로서 커뮤니케이션흐름이 지리적 環境에 의하여 제약받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고립성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조직(system)의 성립에 있어서 국가의 형태나 지형(topography)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형태가 길

29) John R. Pierce, Communication, Scientific American, 1972. 9, p. 31.

30) 朴有鳳 外 1人 共譯, /Gerhard Maletzke, 매스커뮤니케이션 心理學, 法文社, p. 26.

31) E. C. Semple, Influences of Geographic Environment, Holt, 1911, p. 1.

고 좁은 나라는…… 필연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現 人種分布는 分明히 分散的인 效果를 스위스에서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에 있어서는 지형보다 기후가 分散效果를 발휘하고 있다.

Kiev市(쏘련 남부도시) 바로 밑에 있는 Dnieper강의 폭포가 Communication의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Kiev市는 Moscow市에게 통치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고 모스크마는 그 위치적 특징으로 해서 유럽지역의 Russia에 집중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흡사한 지리적 이유에서 프랑스의 파리도 형성된 것이다.”³²⁾

이러한 Spykman의 理論과 유사한 주장을 맥루한도 하고 있다. 맥루한은 文明人과의 感覺均衡이 다른 原始人에 가까운 北極地方의 에스키모族들의 生態를 예로 들면서 에스키모族들은 그림이나 地圖를 어느 角度에서나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 희안한 記憶力을 지니고 있으면서 눈에 익혀볼 뚜렷한 對象物도 없는 純白色의 광야를 잘도 찾아다니며 變化無雙한 海岸線의 地圖도 정확하게 스케치하기도 한다. 우리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눈(雪)을 50餘種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리고 線性이 없는 音響的 空間에 살고 있다. 그들이 世界를 知覺하는 方法은 다른 媒體에 휩싸여 사는 文明人들과 다르다는 것이다.³³⁾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自然環境의 속박은 重要度가 작아지고 있으나 社會的 環境의 制度的 혹은 意圖的 制約에 의한 속박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現代의 특징이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적 제약요인이 변화되므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인간社會에 미치는 영향력은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有機體的 束縛의 제거는 대단히 어렵고 제거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적 시간 소모와 변화량이 극히 적은데 비하여 環境的 束縛의 內容은 과학문명의 도구적 발달과 제도적 장치를 이용한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크게 변화시켜 왔으며 단기간내에 변화량이 크다는 점에서 現代社會의 統制的인 手段이 되는 論爭의 씨를 뿌리고 있다.

4. 커뮤니케이션의 生態學的 實像

이와같이 論爭의 씨를 뿌리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實像은 이제까지 과정적인 측면,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生態學的으로 커뮤니케이션의 實像을 추적할때 人間은 束縛的 要素를 억제하면서 3가지 像을 露呈시키고 있다.

32) N. J. Spykman, Geography and Foreign Policy,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38, Vol. 32, pp. 28. 30~36.

33) 崔鍾洙, 맥루한의 媒體論, 新聞評論, 韓國新聞研究所, 1976. 8, No. 69. p. 103.

(1) 第1像 : 커뮤니케이션의 生産

인간은 存在의 屬性으로 커뮤니케이션을 生産한다. 生産의 意味는 刺戟을 生産하는 것을 말하며 “生態學的 커뮤니케이션의 理論的 命題(I)”³⁴⁾가 論據의 出發이 된다. 本命題에 의하면 環境은 刺戟이며 刺戟은 實存에서 비롯되며 刺戟은 有機體의 變化를 초래할때 意味를 지니게 되며, 意味화된 刺戟은 커뮤니케이션의 쓰스가 된다. 그러므로 人間은 커뮤니케이션을 意圖的 혹은 非意圖的으로 生産을 하게 되는데 그 本質적 出發은 存在이다. 커뮤니케이션 生産說에 대해서 存在에 出發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存在와 밀접한 일의 協業的 活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는 主張이 있다.

그 主張을 인용해 보면, 「人間—自然人으로서의 人間이 生命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必然的으로 自然과의 接觸이 있어야만 한다. 人間은 自然에 作用하여 그것을 利用함으로써 生命을 維持할 수 있다. 이 自然과의 接觸過程에서 人間은 協力하며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를 이루고 소리를 지르며 돌이나 몽둥이를 던져서 큰 집승을 몰아 부치고,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계략’³⁵⁾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며, 또는 손에 넣은 獲得物을 처리하기 위해서 同僚들을 모으고……이 共同的인 生産活動속에서 우리들은 集團成員相互間에 이루어진 相互交涉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人間커뮤니케이션의 原初的 形態를 發見할 수 있다……共同的인 生産活動이야말로 人間커뮤니케이션의 前提條件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李相禧教授는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發生을 協同的인 生産活動에서 찾고 있다. 이 見解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主張이 되고 있는데 결국 커뮤니케이션 生産은 生存을 위한 活動의 必要性에 의해서 創出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生産은 消費가 따라야 한다. 生産과 消費의 均衡적 조절은 社會의 安定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統治者들은 일찍부터 이의 통제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人間의 文化가 발달됨에 따라 이의 생산↔소비관계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의 逆効用的 측면과 効用的 측면이 對立작용을 하면서 이의 양면적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성과 도덕성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非人格的 道具性에서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生産的 측면은 分子的 個體에서 더욱 社會的 重要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社會發展史的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다루어야 한다는 主張을 낳는다.

34) 拙稿, 生態學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35) 角川書店, “世界文化史大系”(生活技術の發生), 李相禧, 人間커뮤니케이션의 本質에 관한一考察, 서울대신문연구소학보, 5집, p.5. 再引

36) 李相禧, 上揭書,

(2) 第2像 : 커뮤니케이션의 消費

커뮤니케이션生産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現象은 消費이다. 消費는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 모든 行態를 일컫으며 生産과 表裏의 關係를 맺고 있다.

社會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는 증가하며 合理性과 非合理性이 對極的인 兩面을 노출하고 있는 大衆社會의 특징을 여러 면에서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Karl Marx는 下部構造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서 “경제적 生産樣式이 社會的 政治的 生活過程을 制約하며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意識이 아니라 거꾸로 人間의 社會的 存在가 人間의 意識을 決定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K. Marx의 주장이 아니라도 生産物이 社會를 떠받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여기서도 生産手段이 미친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現代의 大衆社會에서 個人은 生産手段으로부터 疎外되어 있으며 生産過程의 高度的인 分業化는 人間을 非人格化시키고 있다. 生産過程에 있어서 分業化가 高度로 進行되면 勞動의 主體・客體 및 過程(工程)자체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되면, 精密하게 官僚組織을 가지는 生産體에 있어서는 勞動者, 화이트 칼러는 高度로 分業化한 生産管理의 體系속에 극히 斷片的이고 작은 機械的 機能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누가 이미 결정해 놓은 細目에 따라 機械的으로 그것을 反復할 따름이다. 生産活動에 있어서 主體의 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자기를 나타내어서도 또 나타낼 수도 없다. 그들은 生産過程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社會的 位置에 놓여있는지를 전혀 모르며 심지어 자기가 生産해 낸 製品에 대해서도 완전히 人格的으로 대하고 있다. 그것도 生産過程에서가 아니고 消費者로서 그 商品을 購買할 경우에 限하여 그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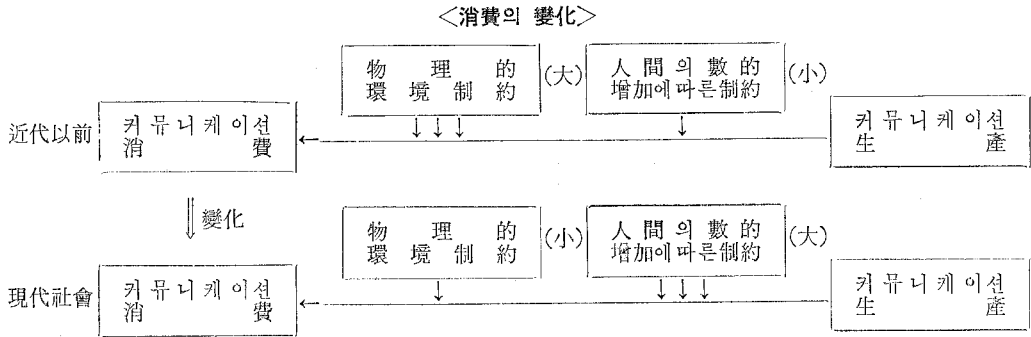
이點에 관하여 만하임은 “機械的인 合理性때문에 實質的인 合理性이 徹底하게 破壞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은근히 비꼬고 있다. 즉 生産過程에 있어서 人間의 自我는 手段化되고 物質化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人間은 勞動生産에서 自己表出・自己價値實現의 길을 찾지 못하므로 生産以外의 곳에서 價値實現의 길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D. Fromm이 말한 것과 같이 “人間은 勞動에 관해서는 怠惰를 理想으로 하고 勞動과 勞動에 結付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深層的인, 때로는 無意識的인 敵意를 가지고 消費生活을 理想化하는 態度”를 지니고 있다. 近代資本主義가 그 支柱로 삼는 바, 勞動을 義務로써 또는 強迫觀念으로서 생각한 禁慾主義는 崩壞되고 勞動倫理에서 餘暇倫理로 移行하는 段階가 되고 있다.³⁷⁾

이러한 社會의 구조적 변질로 인하여 存在者로서의 커뮤니케이션 消費性向은 餘暇倫理

37) 朴有鳳, 매스커뮤니케이션, 一潮閣, pp.172~173.

와 더불어 소비적 매스화를 尙해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은 도구적 이용의 독점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 配分을 統制하기에 이르렀으며 소비는 자기 意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他人의 意志가 作用하여 配分되는 현상이 深化되므로써 커뮤니케이션 問題는 복잡해진다. 이러한 消費的 側面의 變化는 生態學的으로 두드러진 두가지 변화에서 기인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변화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즉 近代以前에서는 文明의 發達이 적어서 物理的 環境制約이 큰 반면 社會의 構成體인 人口數가 그렇게 많지 않고 生産手段이 高度로 分業化 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의 消費는 他人의 意圖의 統制가 적은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는데 現代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人口의 급격한 증가로 大衆社會가 出現되어 인간의 벽이 生産者와 消費者사이에 두꺼워졌고 意圖의 統制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소비는 情報管理 밑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人間의 本能的 消費性向을 개발하여 産業化한 것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産業이고 보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소비적 측면이 社會에 끼치는 영향은 現代에 와서는 生産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사느냐 안 사느냐의 選擇의 餘地밖에 없는 受動的인 消費者」³⁸⁾들을 커뮤니케이션의 消費的 統制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3) 第3像: 커뮤니케이션의 蓄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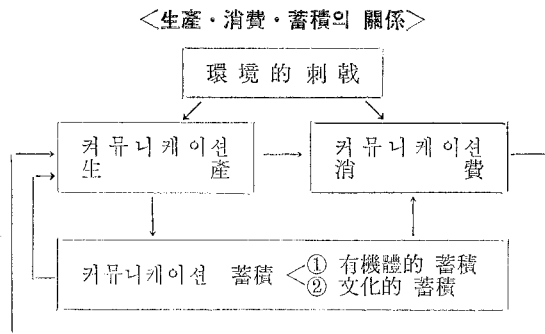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의 蓄積形態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이 蓄積을 위하여 쏟은 人間의 努力은 과거에도, 現在에도, 未來에도 값진 삶을 人間에 주어왔고, 주고, 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축적은 有機體와 外部 兩面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有機體的 蓄積은 適應과 進化로써 表出되고 있으며 外部的 蓄積은 文化的 축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人間의 커뮤니케이션축적의 방법은 文字라는 象徴的 蓄積 —책, 신문, 서류등—이 있고, 音의 蓄

38) D. Macdonald, "A Theory of Mass Culture", in B. Rosenberg (ed.), Mass Culture, p. 60.

積은 녹음기, 레코오드등이 있으며, 像의 蓄積으로서 영화 및 錄畫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蓄積은 人間의 증가와 시대의 累積으로 인하여 축적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및 분배체통의 제도화가 始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산업이라는 새로운 3차원의 人間統制 및 造作的 分野가 人間의 속박요인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生産과 消費에서 蓄積이라는 面은 다같이 重要한데 그 이유는 蓄積된 커뮤니케이션이 生産과 消費를 擴大해가는 Energy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人間 커뮤니케이션의 生産, 消費, 蓄積이 보이는 그 特有的 流通構造는 어떤가? 이 構造的 分析은 또다른 문제가 되므로 여기서는 그 모델과 약간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生産은 環境的 刺戟에 依해서 生産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消費的 欲求에 의하여 生産되기도 하며 蓄積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生産되기도 하는데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은 양이 증가하면서 더욱 강하게 生産의 힘을 증대시켜준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영향을 받아 生産된 커뮤니케이션은 두가지 形態로 흘러간다. 즉 축적없이 消費로 직접 가는 것과 消費도 되고 蓄積도 되는 것이다. 한편 消費는 環境的 刺戟과 人間이 生産한 커뮤니케이션 및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비과정의 제약적 통제가 인간의 생물학적 數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生産과 消費의 상호관계성은 文字 그대로의 狹意的 現象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消費는 다시 커뮤니케이션生産을 자극함과 동시에 生産에 의하여 消費의 欲求의 자극을 받게 되며, 消費 및 生産 모두가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증대 및 감소의 힘을 받는다. 環境的 刺戟은 材源으로서는 重要하나 커뮤니케이션의 직접적인 동기유발의 힘이 작은 반면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의 자극은 材源과 動機誘發에 있어서 큰 비중으로 人間커뮤니케이션에 作用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質이 높아지고 量이 증가하는 축적커뮤니케이션은 生産과 消費에 중요성을 더욱 漸增시켜간다. 이 중요성의 漸增과 個人이 接하여 얻을 수 있는 情報의 制約때문에 情報管理 및 저장이 人間의 世代學習을 統制할 수 있으며 人爲的인 축적커뮤니케이션의 통제로 社會發展 및 人間의 生活像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과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중의 하나로 축적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實現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5. 커뮤니케이션統制觀의 生態學的 分析

이와같이 축적된 커뮤니케이션의 管理와 消費 및 生産의 統制는 人間에게 社會的 特有的인 커뮤니케이션 統制觀을 낳는다. 人間の 社會가 法律 및 制度로써 침전시켜 남긴 커뮤니케이션의 統制觀은 어떤가를 알아보는 일은 언론의 自由, 表現自由등 커뮤니케이션의 自由와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生態學的 分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研究해 왔던 學者들은 一般的으로 커뮤니케이션 統制觀을 大衆의 커뮤니케이션統制觀이 아닌 權力的 커뮤니케이션 統制觀의 立場이나 어느 특정집단의 行態의 立場에서 考察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같은 경향에 머무르게 된데는 政治的 權力的이 主로 統制를 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主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統制觀은 權力的 統制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형성된 統制觀의 이론은 어떤 것이 있나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生態學的인 커뮤니케이션觀의 實像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言論의 自由에 대한 主된 理論으로서는 ① 邪惡한 傾向論(Bad Tendency Test) ② 明白하고도 現存하는 危險原則(Clear and Danger Test) ③ 利益較量의 原則(Ad Hoc Balancing Test) ④ 에머슨 命題등이 있다.

(1) 邪惡한 傾向論(Bad Tendency Test)

美國憲法改正 第1條(The First Amendment)에 관한 初期解釋段階에서 美大法院이 채택했던 法原則이다. 本質的인 罪惡을 초래할 경향이 있는 表現(expression)은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要旨이다. 邪惡한 傾向論은 사실상 表現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에 대해 아무런 保護도 제공하지 못하며 이 원칙에 따르면 政府 또는 그 政策에 대한 有意味한 반대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2) 明白하고도 現存하는 危險原則

홉즈 판사는 “모든 事件에 있어서 問題點은, 使用된 말이 명백하고도 現存하는 위협을 발생시킬 그러한 狀況과 性格을 지니고 있어 本質的인 罪惡을 초래할 것인지의 與否에 달려 있다. 議會는 그와같은 本質的인 罪惡을 제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³⁹⁾” 라고 말했다. 이것이 명백하고도 現存하는 危險原則인데 어떤 表現이 다른 社會的 目的과 충돌될 경우 다른 社會的 目的에 대한 위협이 즉각적이고도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 표현은 보호된다는 것이다.

39) Schenck vs. U. S. (1919).

그러나 明白·現存危險원칙에 따르면 어떤 表現이 어떤 社會的 目的의 달성을 즉각적으로 위협할 때는 언제든지 그 表現은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는 이와같은 제한아래에서는 활발하게 실현되기 어렵다.

(3) 利益較量의 原則

法院은 각 사건에 있어서 表現 및 言論의 自由가 보호하려는 利益과 自由에 대한 制限이 추구하는 利益을 衡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邪惡한 傾向원칙이 表現의 自由에 대해 전혀 力點을 두지 않고 明白·現存危險원칙이 制限된 표현 自由의 領域에만 力點을 두는 반면, 利益較量의 원칙은 表現自由에 대해 충분한 力點을 두고 있다. 이 法原則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限界가 불투명하며 法院判決의 지침이 될 原則의 核心이 없다는 등 批判이 있다.

(4) 에머슨의 命題

에머슨에 의하면 表現의 自由를 성취하는 것은 社會의 유일한 目的은 아니다. 社會的, 政治的 측면에 있어서 表現의 自由는 根本的으로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 또는 方法이다. 따라서 표현의 自由에 관한 어떠한 이론도 다른 價値들——가령 公共秩序, 正義, 平等, 道德的 發展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머슨은 또한 表現의 自由의 核心은 表現(expression 또는 speech)과 行爲(action 또는 conduct)를 구별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表現은 自由로워야 하며 제한받지 않아야 된다. 國家는 表現에 대한 統制를 통해 어떤 다른 社會的 目的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와같은 社會的 目的은 行爲에 대한 統制를 통해서만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에머슨의 입장이다.⁴⁰⁾

이러한 理論的 主張은 국가의 통제에 대해 언론자유가 어떠한 根據에 의하여 어느 線에서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다룬 것들이다.

위의 4理論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表現, 行動에 대한 자유를 논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의 배경으로 커뮤니케이션生産에 대한 자유론을 지니고 있다. 즉 이말은 다시말하면 이제까지의 커뮤니케이션 통제가 생산 통제였다는 것을 말한다. 生産에 대한 統制는 커뮤니케이션의 創造性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로 여기서 종래의 統制觀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面의 탐색을 生態學的 측면에서 시도해 보려한다.

生態學的 立場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통제는 생산에서가 아니라 소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消費의 統制에 立脚한 커뮤니케이션 統制觀은 生産統制에서 오는 統制觀과는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統制라는 面은 生産의 統制와 같으나 커뮤니

40) 朴有鳳 外 3人, 新聞學理論, 博英社, pp.163~166 참조.

니케이션의 蓄積率이 생산통제보다 높기 때문에 社會的 發展의 폭을 크게 하는 동시에 實質的인 統制目的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렵다는 難點이 따르기는 하나 앞으로 人間이 社會적으로 立案할 커뮤니케이션統制觀은 消費的 統制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축적율은 높게 유지하면서 統制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앞에서 살펴본 에머슨의 주장에서도 약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表現과 行動을 구별하여 表現은 自由, 行動에는 制約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커뮤니케이션은 生産, 消費, 蓄積이라는 모든 면에서 입체적으로 統制를 받고 있는 중에서도 生産에 가장 큰 統制를 받고 있다. 生態學的으로 볼 때 이와는 반대로 消費에서 統制를 가장 많이 가하고 生産의 統制的 比重을 감소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과학은 커뮤니케이션축적률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社會的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統制觀을 형성하도록 커뮤니케이션의 社會的 運用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본다.

6. 結 論

人間커뮤니케이션의 生態學的 積分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연구할 것이 대단히 많다. 여기서 개괄적으로 그중의 一部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자 한다.

- ① 커뮤니케이션學에서의 個體는 原子的 個體概念外에 分子的 個體概念을 도입하여 연구를 해야할 것이다.
- ② 인간커뮤니케이션 束縛은 有機體的 束縛과 環境的 束縛이 있는데 近代以前에는 物理的 環境束縛이 컸고 人口의 數가 증가함에서 오는 束縛이 작았는데, 現代는 이와 반대로 物理的 環境束縛이 작은 반면 人口의 數가 증가함에서 오는 束縛이 크다. 이와같은 束縛要因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消費를 변화시킨다.
- ③ 커뮤니케이션의 生態學的 實像은 生産, 消費, 蓄積인데 이들의 관계성은 蓄積을 中心으로 특유한 구조를 지닌다.
- ④ 커뮤니케이션의 統制觀은 오늘날의 生産的 統制 위주에서 消費統制 위주로 옮겨져야 한다.